

박지성 빠진 맨유 벤피카와 무승부

16강 진출 여부 내달 바젤 원정에서 결정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
어리그의 강호
맨체스터 유나
이 티드 (이하
맨유)가 벤피
카(포르투갈)
와 두 골씩 나누는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맨유는 23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벤
피카와의 2011-2012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C조 조별리
그 5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앞섰던
후반 15분 파블로 아이마르에게 빠아
픈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맨유는 벤피카와 나
란히 2승3무(승점 9)를 기록하고 골
득실에서도 벤피카를 1골 앞섰다.

하지만 승점이 같으면 상대전적을
먼저 따지는 규정에 따라 벤피카는
맨유 2무를 기록했지만 원정 다크
점에서 앞서 조 1위가 됐다.

특히 벤피카는 3위인 바젤과의 상
대전에서도 1승1무로 앞서면서 내
달 8일 갈라티와의 최종전에서 지더라도
최소 조 2위를 확보, 16강 진출
권을 확보했다.

같은 조의 FC바젤(스위스·승점 8)
은 이날 오털를 갈라티(루마니아·승
점 0)를 3-2로 이겼다.

이로써 맨유는 내달 8일 바젤과 원
정으로 치르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6강 진출 여부를 가린다.

이날 맨유는 베르바토프를 최전방
공격수로 놓고 좌우 날개에 루이스
나니와 안토니오가 발린시아를 세우는
공격진술을 펼쳤다.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지성은
나니에게 왼쪽 날개 자리를 내주고

벤치를 지켰다.
선제골은 벤피카의 듯이었다.
벤피카는 전반 3분 만에 맨유 진영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니콜라
스 가이탄이 시도한 슈팅이 맨유의
수비수 필 존스의 왼발에 맞고 굴절
돼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행운을 맞
봤다.

기세가 오른 맨유는 후반 9분 공격
에 기여한 수비수 파비우가 페널티지
역 오른쪽 부근에서 골키퍼와 일대일
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맨유는 후반 14분 파트리스 에브라
가 미드필드 지역 왼쪽 측면에서 올
린 크로스를 대량 플레처가 오프사이
드 트랩을 뚫고 역전골을 터트려 승
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하지만 벤피카의 뒷심이 강했다.
벤피카는 역전골을 내준 뒤 1분 만
에 브루노 세사르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앞을
지키던 맨유 수비수 리오 페디的地步를
맞고 흐르자 파블로 아이마르가 달려
들면서 재빨리 차넣어 극적인 동점골
을 뽑았다.

하지만 벤피카의 뒷심이 강했다.
벤피카는 역전골을 내준 뒤 1분 만
에 브루노 세사르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앞을
지키던 맨유 수비수 리오 페디的地步를
맞고 흐르자 파블로 아이마르가 달려
들면서 재빨리 차넣어 극적인 동점골
을 뽑았다.

맨유는 후반 막판 투입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무
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바젤은 갈라티와의 조별리그
5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 3골을 펴
부어 낙승이 예상됐지만, 후반 30분부
터 2골을 내줘 3-2로 신승을 거뒀다.
바젤의 미드필더 박주호는 풀타임을
뛰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나니 “힘드네”

맨유와 벤피카의 챔피언스리그 C조 경기. 맨유의 공격수 나니가 벤피카 악셀 비헬의 볼을 뺏기 위해 거친 태클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A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독
일)이 비아레알(스페인)과의 조별리
그 5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3분과 후
반 24분 연속골을 터트린 프랑크 리베
리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뮌헨은 이날 승리로 4승1무(승점
13)를 기록, 나폴리(이탈리아·승점
8)에 1-2로 패한 맨체스터 시티(잉
글랜드·승점 7)와의 6점으로 그친

로 벌려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
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조 3위로 밀린 맨시티는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
의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됐다.

B조의 인터밀란(이탈리아)은 트라
브존스포르(터키)와의 5차전 원정에
서 1-1로 비기면서 3승1무1패(승점
10)를 기록, 나란히 승점 5에 그친

3~4위 CSKA 모스크바(러시아)와
릴(프랑스)은 제치고 16강 진출권을
가져갔다.

이밖에 D조에서는 이미 16강 진출
권을 따낸 ‘우승 후보’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이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
티아·승점 0)와의 5차전 홈 경기에서
6-2 대승을 거두고 선두 행진을 이어
갔다.

/연합뉴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은 내달 8일 뮌헨과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권을 확정된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뮤

한편 16강 진출 확정된 바이에른 뮤</p